

英國 大學의 教養教育

金 光 億

(서울大 助教授)

I.

이 글을 씀에 있어서 필자는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에 대한 전문가도 아닐뿐 더러 체계적인 연구도 없이 결국 수필식의 글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선뜻 붓을 들 수 없이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필자가 영국에서의 대학생활에서 겪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서술한다는 것이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계발하는 데 보탬을 줄 수도 있으리라는 스스로의 기대 속에서 조그마한 용기를 가져본다. 이 글은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대학에서 과연 교양교육이라고 특별히 설정해야 할 분야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곧 대학이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로 교양교육을 위한 장(場)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과 만약 그렇다면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양교육은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교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져지게 된다. 그런데, 이상의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영국의 경우를 통하여 모색하려 할 때 우선 당혹감에 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통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양교육에 해당될만한 교과과정이나 강좌가 영국

대학에는 특별히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교양교육을 영국 대학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는 작업은 일차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하여 영국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간단히 결론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하여 더욱 교양의 폭을 넓히고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대학에서 말하는 교양교육과 영국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교육이 그 개념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두 나라 대학의 경우를 평면적으로 대조 또는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 대학 특히 옥스퍼드에 초점을 맞추어 그곳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교양교육을 살펴보는 데에 국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교양교육을 논하는 또 하나의 관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교양교육을 발전 지향적인 입장에서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여기서 교양이란 무엇인가를 세심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것을 교양이라고 부르는지를 세 가지

차원, 즉 행위의 차원, 생활의 차원 및 지식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로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데에 교양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교양의 정도와 질을 평가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언행과 몸가짐 등의 특징을 참조하여 우리는 곧장 교양인과 비교양인을 구분한다. 대개 교양 있는 사람의 언행과 태도 그리고 사고방식과 가치관 등은 한 사회에서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형(理想型)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교양이란 사회생활을 질서있게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에 효과를 발휘하는 자질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행동의 절도(節度)와 예의, 표현의 부드러움, 사고(思考)의 포용성과 융통성, 규범 등의 어휘로 지칭되는 행동의 제 측면들을 우리는 교양이란 개념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것들은 가정교육에서 특히 강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소위 인격완성이나 수양을 위한 노력으로서 평생교육의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이외에도 특히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엘리트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의 규범과 가치관 사고방식등을 개발하는데에 큰 역점을 둔다. 그리하여 토론의 방법과 자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즉 반대 의견을 참을성 있게 경청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과 공정한 결론을 얻기위한 과정에 관련된 규범을 훈련하고 익히는 것이다.

둘째로, 교양은 앞서 말한 행위의 차원에서 평가되어지는 제 요소들 습득하는데 필요한 기본요소를 개발하는 측면을 말한다. 그것은 흔히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제반 활동에 연관되어 설명된다. 교양도서, 교양활동 등의 말로써 암시되듯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 혹은 예술활동에 관계된 부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떠난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과 기타의 취미와 운동 등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심성의 조야함을 다듬는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문화활동은 그것을 본업으로 삼는 전문가의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즉 예술가의 예술을 위한 작업이나 조예를 교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자기의 본업이라고 규정한

범주를 떠나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차원을 떠난 다른 분야에 스스로를 참여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폭을 확대하는 과정과 결과를 교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취미생활과 과외활동을 학문탐구 못지않게 중요시하여 권장하고 이를 위한 제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진다.

교양의 세번째 개념은 교양과정, 교양교육 등의 말로써 제시되는 지식의 폭을 넓히고 내용을 다양화하는 작업 및 그 결과에 관계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특히 이 세번째 개념에 의거한 교양과정이 중요시 되어오고 있는것 같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전공분야에 속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도록 권장되는 바 특히 철학, 사상을 비롯하여 인문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기초부문에 관계된 지식과, 시사에 대한 판단력이나 사물에 대한 뛰어난 안목을 기르기 위한 제반 과정들이 이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Ⅲ.

이상에서 간단히 논한 바의 교양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영국 대학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의 행위의 차원에서의 교양은 우선 대학문화라는 맥락을 통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문화를 일정점단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양식과 사고의 유형 및 관념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때, 영국에서는 대학사회에서 통용되며, 대학 졸업자만이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언어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따른 언어의 차이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에 따라 어휘와 표현양식 그리고 특히 발음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와 아울러 행동에서의 매너를 세련하는 것도 시도된다. 물론 언행을 세련시키고 발음을 교정하는 어떤 특정의 교과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옥스퍼드대학의 경우를 보면 학생 한명에게 전공분야를 지도하는 교수(Academic Supervisor)와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지도교수(Moral Tutor)가 각각 정

해져 있어서 항상 이 두 지도교수와 접촉을 하게 된다. 또한 칼리지의 학장, 학생감등은 매달 한번씩 학생들을 번갈아가며, 초대하는 파티를 개최하며, 매주 한번씩 몇몇 학생들을 Table 이라고 부르는 교수들 전용 식탁에 초대한다. 이러한 파티와 회식에서의 참가를 통하여 학생들은 행동의 모든 면을 스스로 다듬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교양이 또한 상호 존중과 공정함을 나누어 갖는 행동을 말한다면, 이는 써클활동에서 훈련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토론회, 연구회, 동호인의 모임등에서 학생들은 토론의 자세와 방법을 익히고 서로 다른 관심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한 예로서 Union Society 라는 토론회는 그 좌석배치, 규칙, 용어, 토론방식 등이 모두 영국 하원의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토론회의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주장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다른 견해에 대하여 경청하고 논쟁하는 방법과 태도를 익히게 된다.

영국의 종합대학에는 음악이나 미술 연극을 위한 단과대학이 없다. 이러한 분야는 음악학교, 미술학교라는 이름으로 따로 존재하며 대학에서는 음악사나 예술철학 등의 연구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예술분야의 취미활동은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옥스퍼드만 하더라도 미술관 및 박물관이 8개 있으며 12개의 연극회, 9개의 영화클럽, 23개의 합창단, 음악연구회들이 수십개의 문학클럽과 더불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스포츠도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 중의 하나로서 태권도클럽에서 시작하여 행글라이더 클럽에 이르기까지 45개의 자기 다른 종류의 스포츠회가 있으며 각 칼리지는 독자적으로 축구장, 럭비장 테니스코트, 수영장, 실내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학생은 누구나가 최소한 한개의 예술분야의 클럽과 또 한개의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게 마련이며 언제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클럽활동의 다양함은 또한 「무정부주의자 모임회」 「파비안 소사이어티」 「반나찌주의자 모임회」 등을 비롯한 30개의 정치 및

이념활동 단체와 「자연보존회」 「사랑채방을 위한 모임」 「인종차별주의 반대회」 등을 비롯하여 「시험제도폐지운동회」와 「동성에 연구회」에 이르기까지 학내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문제에 관한 클럽도 38개가 있으며, 「바둑클럽」을 위시한 지극히 취미적인 클럽과 각종 종교클럽, 수십개의 학술클럽 등 모두 200개가 넘는 과외활동을 위한 조직체들의 존재에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모임은 매일 「Daily News」라는 광고판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지되어서 누구든지 그때 그때 관심에 따라 참가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옥스퍼드에서는 한학기초에는 그 학기동안에 각 클럽이나 단체의 행사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져서 매일매일 그날의 행사로 분류되어 전체를 묶어서 「VADE MECUM」이라는 소책자로 발행된다는 점이다. 이 책자의 발행도 역시 학생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며, 일단 그 책자에 광고된 그대로 어김없이 각 단체는 행사들을 진행시킨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사회의 지극히 안정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일을 사전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일단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원리 원칙이 몸에 밴 학생들의 생활태도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양의 세번째 개념인 전공이외의 분야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옥스퍼드 대학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여길 수 있다. 흔히 옥스퍼드를 가리켜 전인적 교육 또는 신사의 양성을 위한 장소로 말하지만 그것은 교양내용이 단순히 광범위하다거나 다양하다는 것 때문은 아니다. 옥스퍼드의 학문적 분위기나 특징은 어느 한 이론이나 시각에 구애되거나 치중하지 않고 자유롭고 포괄적인 이론 및 방법론적인 접근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갖추는 과정을 통하여 비전공분야에의 지식과 전문분야의 지식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공분야에서의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비전공 분야의 이론과 관점의 도입 내지 응용이 권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대학이란 곳을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학문을 탐구 연마하는 곳으로 인식하

고 있다. 즉 일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고등학교 과정에는 O-Level(Ordinary Level의 약칭)과 A-Level(Advanced Level의 약칭)의 두가지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다. 전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직장생활로 들어갈 사람이 치르는 시험으로서 각 기관과 기업체에서는 분야에 따라 어떤 과목의 시험을 치룰 것을 요구하게 되며 학생들은 그것에 준하여 국가 시험을 신청한다. 예를들어 A은행은 입사 전형조건으로 영어와 수학, 혹은 철학과 통계학 및 역사 과목에서의 O-Level을 요구하면 학생은 그 과목의 시험을 신청하여 치르고 그 성적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A-Level 시험을 치른다. 이것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학생은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이나 분야를 미리 결정하고 그 전공 분야(학과)에 입학하는데 요구되는 몇가지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예를들어 A 대학에서는 물리학 전공을 희망하는 응시자에게 영어 철학 물리 수학의 네 과목에 대한 A-Level 시험을 요구하며 B대학 물리학과에서는 영어, 물리 수학 외에 철학과 논리학 혹은 역사에서 한 과목 선택하여 A-Level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A-Level 시험성적을 가지고 물리학을 전공하기 위하여 몇개의 대학의 물리학과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 A-Level 시험을 치기까지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히 명문 사립학교에서 보여지듯이 소위 전인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스포츠와 취미활동 외에 고전, 논리학, 수사학, 역사, 문학, 철학, 인류학, 사회사상 등의 제 분야에 걸친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주어진 제목을 다룬 에세이나 레포트를 작성하여 교사로부터 비평을 받는 방식을 통하여 실시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웬만한 고전 및 현대문학 작품들을 섭렵하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읽는 E.H. Carr의 「What is History」도 고등학교생들의 읽을거리에도 포함된다. 이러한 폭넓은 교육은 그것이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학입학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들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A-Level 외에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시험문제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물리학 시험에는 「수학과 음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논하라」라든가 법학과의 시험에는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응시자에게 한시간 내지 두시간에 걸친 면접과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시험을 또 치르는 것이다. 이러한 응시과정에서 학생의 전공에 관한 지식과 능력 뿐만 아니라 비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를 종합하고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는 안목이 합격의 관건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하여 학생들은 대학입학과 더불어 곧장 전공분야에 대한 공부로 들어간다. 교양국어, 교양철학, 교양외국어와 같은 과목은 대학에는 없는 것이다. 대신에, 누구든지 교양수준의 외국어나 역사나 예술, 기술을 배우려면 주위의 College of Further Education이나 Polytechnic에 시간제(part-time)로 배우거나 방학기간에 Drama School, Art School 등에서 특설한 과정에 참가하면 된다. 대학에서는 강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들 중 마흔대로 수강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전공분야를 전문적 수준에서 습득할 수 있다. 교양교육이 낮은 차원에서 비전공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고루 갖추는 것이라면 이런 의미에서 옥스퍼드는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강의 외에도 학생들로 구성된 50여개의 전문분야별 연구회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교수의 취임과 은퇴, 시상기념등의 강연, 정치가, 사회운동가, 과학적 발견 발명을 이룩한 학자들이 초청된 특별강연과 토론회등이 개최되고 있다. 특히 교수의 취임, 은퇴, 시상기념 강연은 관계부문의 학문적 방향과 결과를 제시하고 발표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대학출판부에서는 이런 강연은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판매하게 된다. 인접학문간, 또는 학문사이의 연관은 특히 중시되는 바 P.P.E와 같

은 과정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Politics, Philosophy, Economics 의 약자로서 이 세학문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여 정치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고자하는 학생은 이 학과과정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타과의 강좌를 수강한다거나 연구회, 학회 및 특별활동에의 참여는 스스로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이외에 이러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대학은 이상에서 열거한 학생들의 모든 교양활동과 교양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각 씨클과 토론회 연구회등은 각각 독립된 방이나 회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계 및 모든 시설을 학교에서 공급하며 외부의 것을 사용하도록 주선도 하고 학생회에서는 모든 기본비용을 보조해준다. 전국학생조합(National Union of Student)이 있어서 대학생이란 누구나 그 회원자격으로 모든 예술전시회, 연극회, 철도, 항공요금, 숙박시설 이용 등이 모두 30~50%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은 과외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IV.

영국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대학이 어떤 장(場)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차원에서 인식과, 학생을 어떤 존재로서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담당자들의 자세와, 그리고 교육에의 투자에 대한 신념의 세 요소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영국 대학에서의 교양활동이 고등학교내서의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연장·발전된 단

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은 그 전단계인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 별관 없이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구별지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차이는 바로 교양교육의 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직결된다고 본다. 즉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개발이 요청되는 원인은 교과과정의 제약성에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고등학교를 위시한 대학 이외의 교육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할 분야와 수준의 것을 대학이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위에서는 교양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문제라기보다는 교양교육을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대학이 여하히 제공할 것인가가 선행되어야만 할 문제인 것 같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나 대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교수와 학생수의 비율,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이야기 조차 할 장소와 시간의 결여, 전공의 분야에 흥미를 가져볼 여유조차 가질수 없도록 만드는 성적평가제도, 낙후와 결핍의 상태에 있는 후생시설과 교육사업에서 될 수 있는 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운영원칙……이런 것들이 교양교육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하면 아마도 비현실적인 몽상을 늘어놓는 것으로 비판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당장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별개의 것이지만 최소한 가장 가까운 해결방법으로서 고등학교의 교육의 폭과 질을 넓히고 높이는 일을 기대할수는 있을 것이다.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만 풀출 알고 우리클로 작문하나 제대로 못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들어오는 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국어, 교양작문, 교양영어의 캣비퀴만을 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